



침묵을 깬 여성들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79명의 초상화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인사말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은 일본에서 최초로 전시 성폭력,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초점을 맞춘 기록과 활동의 거점으로서, 2005년 8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wam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책임자를 재판에 넘긴 '여성국제전범법정' (2000년, 도쿄)을 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신 고 마쓰이 야요리 씨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되었습니다.

①젠더 정의의 시점에서 전시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②피해와 동시에 가해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③평화와 비폭력 활동의 거점이 될 것을 목표로 하는 ④시민운동으로서 ⑤국경을 넘은 연대활동을 추진한다는 5개의 기본이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wam에서는 특별전과 세미나 개최, 조사 및 기록의 보존 및 공개, 연대 행동으로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접하고,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가해 책임 문제를 마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꼭 참여해 주세요.



저널리스트 겸 활동가였던 마쓰이 야요리 씨. 아사히 신문 기자로서 인권, 개발, 여성, 평화 등을 주제로 기사를 계속 써 왔으며, 아시아와 연대하는 여성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개관시간: 금·토·일·월요일 13:00~18:00

2월 11일, 2월 23일, 4월 29일, 11월 3일은
'축하 및 기념하지 않기 위해' 개관합니다.

휴관일: 화·수·목요일 (천황제 유래의 상기 나흘을 제외함)

연말연시, 전시교체기간

관람료: 18세이상 500엔

18세미만 300엔

초등학생이하 무료

※장애가 있는 분과 보호자 분은 무료입니다.



wam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은
NPO법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 기금을 통한 사업입니다.

우) 169-005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와세다 2-3-18 AVACO빌딩 2층
T : 03-3202-4633 F : 03-3202-4634 E : wam@wam-peace.org
URL : <https://wam-peace.org/> Twitter : @wam_peace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전시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를 기억함과 동시에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동을 시작하는
기록과 활동의 거점입니다.



wam

액티브 뮤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am관내 소개



● 전시 연에 1~2회,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상설 코너에서는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재판 받은 일본군 '위안부'제도 책임자에 관한 패널도 있습니다.



● 도서실 일본군 '위안부'문제 및 전시성폭력 관련 서적, 잡지, 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재판, 지원 단체가 발행한 책자, 일본군 관련 공문 등의 사료가 내부분 갖추어진 곳은 wam뿐입니다. 마쓰이 야요리 씨가 쓰신 모든 기사 및 논문을 수록한 파일도 꼭 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스페이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다양한 교류의 장입니다.



아시아 전역의 위안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본군 위안소 지도'는 wam의 조사활동 성과 중 하나입니다.

wam의 다양한 활동

● 전시

국제 심포지엄, 세미나, wam de video (영상 상영 및 제작자와의 대화), wam de cafe (카페 형식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눔) 등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또 여성과 인권에 관한 그때 그때의 사건을 배우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 조사·출판·아카이브스

특별전을 책자로 간행하며 'wam소식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wam의 활동을 전합니다. 또 '일본군 위안소 지도'에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조사, 증언기록을 미래로 남기는 '일본군 '위안부' 아카이브스'의 실현을 위한 기록의 보존 및 디지털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연대행동

일본정부와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사실을 인정하도록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하여 UN에 정보 제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나 무력 분쟁지역의 성폭력 등 군대에 의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아시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여성, 평화, 인권을 주제로 한 국내외 뮤지엄과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 특별전

- 제1회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모든 것 - '위안부'피해와 가해 책임 (2005년 8월~11월)
- 제2회 마쓰이 야요리의 전업적 (2005년 12월~2006년 4월)
- 제3회 내버려진 조선인 '위안부' (2006년 4월~11월)
- 제4회 동티모르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 - 일본군과 인도네시아 지배 하에서 (2006년 12월~2007년 5월)
- 제5회 중학생을 위한 '위안부' 전 - 모든 의문에 답하겠습니다! (2007년 6월~2008년 5월)
- 제6회 어느 날,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 중국 전장에서의 강간과 위안소 (2008년 6월~2009년 6월)
- 제7회 증언과 침묵 - 가해 경험을 고백한 전 일본군인들 (2009년 7월~2010년 6월)
- 제8회 여성국제전범법정으로부터 10년 -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다 (2010년 7월~2011년 6월)
- 제9회 필리핀·일어선 플라들 - 일본군에 짓밟힌 섬들에서 (2011년 7월~2012년 6월)
- 제10회 군대는 여성을 지키지 않는다 - 오키나와와 일본군 위안소와 미군 성폭력 (2012년 6월~2013년 6월)
- 제11회 대만 '위안부' 증언 - 일본인 취급을 받게 된 아마다 (2013년 7월~2014년 6월)
- 제12회 중학생을 위한 '위안부' 전 + (2014년 7월~2015년 6월)
- 진금미기획전 철저 검증! 오미우리 신문 '위안부'보도 (2014년 11월~2015년 6월)
- 제13회 '아시아 해방'의 미명하에 - 인도네시아 일본군 점령 하에서의 성폭력 (2015년 7월~2016년 6월)
- 제14회 지옥의 전쟁터 버마의 일본군 위안소 - 문옥주 씨의 발자취를 따라서 (2016년 7월~2017년 7월)
- 제15회 일본인 '위안부'의 침묵 - 국가에 의해서 관리된 성 (2017년 8월~2019년 2월)
- 제16회 조선인 '위안부'의 목소리를 듣는다 -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9년 3월~2020년 11월)
- 제17회 천황의 전쟁 책임, 망각에 저항하는 목소리 - 여성국제전범법정으로부터 20년 (2020년 12월~2021년 12월)
- 제18회 중학생을 위한 '위안부' 전 + 교과서 (2022년 1월~2022년 11월)



온라인 공개중!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친구 모임 연회비: 3,000엔 ● 유지 회원 연회비: 10,000엔

회원에게는 회보 'wam 소식지' (1년에 3번) 외에 행사 안내 등을 공지합니다. 유지회원은 입장료 무료, 세미나 및 간행물 할인도 있습니다.

우편 대체 계좌 번호: 00110-2-579814

명칭: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 기금' 계

기타 입금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